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7. 1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이석준	☎ 760-75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장마철 농작물 피해 예방 사전 관리 · 신속 대응 당부

- 제주지역 6월 30일부터 장마 시작...평년보다 11일 늦어 -
- 배수로 정비, 병해 확산 예방, 시설하우스 전기시설 점검 등 당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6월 30일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가운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.
- 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평년(6월 19일)보다 11일 늦은 6월 30일에 시작됐다.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은 장마 시작이며, 가장 늦었던 해는 1982년(7월 5일)이다.
- 더욱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2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노지포장 침수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- 침수 또는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 뺄 도랑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, 역병 등 병해 예방을 위해 강우 전에 적용약제를 미리 살포해야 한다. 또한 시설하우스 전기시설과 비상 장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.
- 특히 노지감귤은 검은점무늬병 감염의 70% 이상이 장마 기간에 발생하는 만큼 비가 오기 전에 방제해야 한다. 방제 시기를 놓쳤다면 비가 그친 후 48시간 이내 또는 누적 강수량 200mm 이상일 때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발작물은 장마철 병해와 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, 비가 오기 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를 준수해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.
- 시설하우스는 누전차단기와 비상발전기 등을 점검하고, 강풍에 대비해 버팀줄과 비닐 고정끈 등을 미리 보강해야 한다.
- 침수 또는 관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, 작물 앞에 묻은 흙 양금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.
 - * 침수: 식물체(농작물)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
 - * 관수: 식물체(농작물)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
- 하우스 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 신속히 물을 빼고 환풍기 등을 최대한 작동시켜 환기시키며, 비가 갠 후 살균제를 살포해야 한다.
- 또한 역병 등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,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요소 0.2~0.3%액(물 20L에 40~60g) 또는 제4종 복합비료를 엽면시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.
- 농업기술원은 기상관측장비 운영과 기상청 연계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를 통해 기상재해를 분석·예측하고 있으며, 농업인에게 신속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제공하는 등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- 이석준 농촌지도사는 “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농업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, 장마철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·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장마철 농작물 재해 관리요령(6호)

2026. 6. 30.

○ '26년 6월 30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 장마가 시작되었으며, 정체전선 영향으로 7월 2일 새벽까지 돌풍,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노지포장 침수 및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 관리요령(제2026-6호)를 발표함.

※ 제주도 장마철 시작: 2026년 6월 30일(제주도 장마철 시작 평년 6월 19일)

※ 강우) 7월 1일~2일 제주도 30~100mm 이상(시간당 30mm 안팎, 많은 곳 산지 120mm 이상)

□ 주요 관리내용

작목	예상되는 피해	사전대책	사후대책
노지감귤	침수, 병해	배수로 정비, 약제 기간방제	- 약제 및 영양제 살포
시설감귤	침수, 낙과	배수로 정비, 환기실시	- 약제 및 영양제 살포 - 환풍기 가동
참다래	침수, 병해	배수로 정비, 약제 살포, 환기실시	- 약제 및 영양제 살포 - 환풍기 가동
밭작물 (콩,참깨,수박, 단호박,옥수수)	침수, 병해	배수로 정비, 약제 살포	- 약제 및 영양제 살포
감자, 메밀	부패, 수발아	배수로 정비, 조기수확	- 수확 후 철저한 건조

□ 사전대책

○ 침수 또는 습해 방지를 위한 물 뺄 도랑 설치 및 재정비

- 하우스 감귤, 과채류, 화훼작물 외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 재정비

○ 감귤, 과채류 등 장마중간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병해 예방을 위한 적용약제 살포

- 감귤: 검은점무늬병, 궤양병 등

- 참깨: 역병, 잎마름병 등

- 수박: 역병, 탄저병, 덩굴마름병, 흰가루병 등

- 하우스 과채류: 곰팡이병, 총채벌레 등

□ 사후대책

① 감 귤

- 침수된 포장은 신속히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, 병해예방을 위한 살균제 농약과 생육촉진을 위하여 요소 0.2%액(물 20L에 40g)을 혼용하여 살포
- 특히 장마기간에는 검은점무늬병 방제 후 경과일수(20~25일) 및 강우량(200~250mm)이상 내렸다면 재 살포하는 등 기간방제에 주력

② 하우스작물(감귤, 채소, 화훼)

- 예고 없는 정전 시 환기 대책을 신속히 조치하여 고온피해 방지
- 외부 빗물이 유입된 곳은 물을 뺀 후 병해 예방을 위하여 적용약제 살포
- 하우스 감귤은 신속히 물을 뺀 후 토양건조를 위한 주야간 강제 환기 실시
- 시설 파손 시는 신속 복구 후 작물생육 촉진을 위한 요소 0.2~0.4%액(물 20L에 40~80g)을 엽면 살포하고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
- ※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일조부족으로 작물이 약해져 있어 생리낙과 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심한 열매숙기 작업은 지양

③ 노지채소 (단호박, 수박, 참외 등)

- 박과작물은 습해에 매우 약하여 탄저병, 덩굴마름병, 역병, 흰가루병등 발생하므로 예방위주로 적용약제 살포하며 강우 종료 후에도 병해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히 추가 약제 살포 실시
- 침수, 잎 손상 포장은 요소 0.2~0.3%액(물 20L에 40~60g) 또는 제4종 복비를 엽면시비하여 작물 생육 회복
- 노지 채소류는 묘상관리를 위하여 배수로와 육묘상 망사터널을 정비하고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

⑤ 밭 작 물

- 침수포장은 신속하게 물을 빼고 요소 0.2~0.3%액(물 20L에 40~60g) 또는 제4종 복비 엽면시비 실시하는 등 생육촉진
- 참깨, 콩 포장은 역병, 잎마름병 등의 병해 방제를 위한 적용약제를 살포

⑥ 공통사항

- 작물이 침·관수 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깨끗한 물로 잎에 남아 있는 흙 양금 씻어내기
- 하우스 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 빠르게 물을 빼고 환풍기 등을 최대한 작동시켜 건조시키며, 비가 갠 후 예방위주의 살균제 살포

작물별 자세한 대응 요령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-book에 「제주지역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